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식

외부 활동 어려운 노인세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빛의 목수’를 받으신 어르신



◇ ‘가루비누 키트’를 받으신 어르신

제작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 배포되어 손쉽게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대상자가 2개의 완성작을 만들어 한 개는 본인이 소유하고 한 개는 후원을 할 예정이다.

비대면 키트 중 빛의 목수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시골이라 화장실을 가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고, 가는 길에 책상에 다리를 부딪혀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불빛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서 하기 싫었는데 생활지원사가 함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혼자 있는 노인을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비대면 콘텐츠’ 이젠 집에서 200% 즐기자!!!



- 밴드**
- * 복지관 소식
 - * 홍천실버신문
 - * 다양한 비대면 사업
 - * 노년사회화교육 수업 안내



- 유튜브**
- * 복지관 소식
 - * 노년사회화교육 강의



- 홈페이지**
- * 복지관 소식
 - * 공지사항
 - * 홍천실버신문

국립횡성숲체원 ‘빛의 목수’ ‘가루비누 키트’ 배포 생활지원사 통해 500명에게… 건강·행복 증진 효과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전염성 질환의 유행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노인세대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원지역 사회배려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0명에게 국립횡성숲체원 비대면 키트를 무료로 지원했다.

비대면 키트는 빛의 목수와 가루비누 키트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키트는 지난 6월 1일부터 생활지원사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생활지원사와 대상자가 1:1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CONTENTS



- 02 - 4차산업혁명-농사를 스마트하게
- 03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②농기계사업
- 04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 05 - 문화행사
- 06 - 체육행사
- 06 - 기자칼럼

- 07 - 인생칼럼
- 07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 08 - 광고



4차산업혁명 - 농사를 스마트하게**IT기술·빅데이터 활용 비·습도·광량 내 맘대로 조절****농사를 스마트하게 지어보니**

농사짓는 일을 하늘에만 의존하던 ‘천수답’ 농경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제일 커다란 국가경영 능력의 하나였다. 이제 농사는 기계화 농업을 거쳐 바야흐로 스마트 농업 시대가 되었다. 농사짓는 데는 비와 습도, 광량이 절대적인데 이를 기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효율적이다. 스마트 영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스마트 팜(Smart Farm)이란?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도, 습도, 광량, 토양,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단계의 정밀한 관리와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수확량, 품질 등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관수할 때 직접 밸브를 열고 모터를 작동해야 했다면 스마트 팜에서는 전자밸브가 설정값에 맞춰 자동으로 관수할 수 있다. KT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광양시와 함께 스마트 팜 체계를 함께 개발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광양시에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에 적용하였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TV, 디지털 위성방송으로 가지, 고추, 단호박, 매실, 무, 미나리, 고구마, 호박 등 재배법을 확인하고 병충해 예방법 등을 상담하는 체계도 제공했다.

스마트 팜의 운영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IT 기술은 스마트 농사에도 필수적이다. IT 기술은 다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화하고 데이터를 분산처리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여 영농인들이 활용하게 하고 있다. 온도, 습도, 광량과 같은 시설환경 및 생육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어느 환경에서 고품질 농산물이 수확되는가를 파악한다.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작목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해놓으면 차광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고품질 농산물 수확이 가능해진다. 경영적 측면에서도 축적된 가격 정보를 분석하여 판매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출하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요즘 농업경영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농업인 나이의 고령화다. 이러한 공백을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렵다. 노동의 질 면에


**출하 시기 조절 고품질 농산물 수확
기존 농사 인건비 비해 경비도 저렴
농촌 고령시대 맞아 급속 확산 전망**

서도 농촌인구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는 점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시설,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값싼 해외농산물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시스템으로는 중소규모 농가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IT 기술을 활용하면 소비자 직거래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싸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은 농사짓는 일에도 활용되는데 사실 작목들이 좋아하는 온도, 습도는 주간과 야간이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기계에 설정해 놓는다면 온도가 올라갈 경우 자동으로 팬이 돌아 온도를 내려주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온풍기가 돌아 온도를 올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습도도 제습기와 미스트기가 작동하여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주면 농가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

경비 면에서 보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고정비용

이 증가하지만, 이는 기존 농사의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경제적이다. 또한, 정밀한 기상 환경관리는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스마트 팜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기본 교육, 첨단 기기 활용 기술 교육, 스마트폰 활용 원격 제어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나 기피하는 직종이 되고 있다. 자기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최고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사상도 당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해외농산물과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할 때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영농법이 자리잡게 된다면 농업인의 수고와 생산물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시작단계인 스마트농업은 농사의 규모와 장소에 따른 보다 광범위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이다.

참고: 1. 네이버 지식백과
2. LG헬로비전(2021.5.31.)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앞서가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② 농기계사업

승용 이양기 등 농기계 880대 임대 농업인 편의 제공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가운데 이준호 농기계담당)



◇농기계 임대 출고 모습



◇이준호 농기계담당

현장밀착형 농기계사업 강화

이번호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홍천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농기계 분야의 사업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중점사업을 들 수 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본소, 동부, 서부, 남부, 내면 5개소)

임대 기종은 승용이양기 등 80종으로 8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임대서비스를 위해 농번기인 3월부터 6월과, 9월부터 11월까지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07시40~50분에 조기 출근하여 08시부터 출고를 하고 있다.

운반이 어려운 콤바인, 범용콤바인, 자주식 베일러, 원형 베일러, 토비살포기, 트랙터, 자주식 토비살포기, 스킴드로더 등 8종의 대형농기계는 현장배송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운송료는 3만원/1회 왕복이다.

농기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원거리 지역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두촌면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철정지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작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국비 8억, 도비 1.6억을 확보하여 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절차

사전예약 ➡ 임대계약서 작성 ➡ 접수 및 임대료 납부 ➡ 임대장비사용방법 및 안전교육 ➡ 출고 ➡ 농기계사용 ➡ 세척 후 반납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정비 호평 농업인 1,500명 대상 교육도 실시 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둘째,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정비 및 교육훈련 사업 실시

이 사업은 익히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수리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 정비기반이 취약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3월초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3월 3일 홍천읍 하오안리를 시작으로 교육 인원 1,500명을 목표로 60회에 걸쳐 운영된다.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1대당 10만원 미만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10만원 이상은 부품 값만 실비로 받는다.

특히 금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수리, 정비에 필요한 부품공급 위주로 실시한다. 전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59회에 걸쳐 121개 마을 1,296명을 대상으로 2,541대를 수리 및 정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는 바 4개 과정에 37회에 걸쳐 408명에게 실시할 예정에 있다. 또한 알기 쉬운 농기계정비, 안전사고 예방 홍보책자를 1,500부를 발간·배부한다.

셋째,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이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등 경영비를 절

감하고, 농가부채 감소 및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적기 영농지원 및 숙련된 농기계 운전원의 농작업 대행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1개 작업단이 150회에 걸쳐 40ha를 대행하고 있다. 대행료는 100~250원/3.3㎡으로,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업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운, 로터리, 무논정비, 벼 이앙 및 수확작업에서 범용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농작업을 추가하여 대행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평가에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농기계사업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준호 농기계담당은 서석면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이후 줄곧 고향에서 봉직하고 있다.

그는 농가들이 원할 때 불편하지 않고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분야 직원 26명 전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하는 농민들이 다들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고마워 하셔서 농번기에 주말 없이 근무를 해도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론 농번기 농기계분야의 휴일 없는 근무와 조기출근 및 원거리 출장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음에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함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홍천무궁화수목원

‘무궁화 고장 홍천’을 대표하는 으뜸 수목원



◇홍천무궁화수목원

112개 품종 8,000여 그루 무궁화 보유 전국 최고 야간경관 조명, 돌레길 등 조성 힐링 장소로 각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쉬며 위로를 받고 싶다면 강원도 홍천 무궁화수목원으로 가보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일대 315,935㎡의 부지에 한서남궁역광장, 무궁화 조형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미로원 등 무궁화 소재 테마원 뿐만 아니라, 16개의 주제원을 비롯한 무궁누리길(숲속산책로), 온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단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 공립수목원으로 정식등록을 하면서 국내 최초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수목원으로 2020년, 소개하고 싶은 전국 최고의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선정된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112개의 품종과 8,000여 그루의 다양한 무궁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육환경·규모·접근성·사후 관리 등 힐링 장소로 잘 꾸며진 곳이다.

신비의 은하수 길 걸으며 삶과 위로를!

홍천무궁화수목원 입구의 왼쪽에 위치한 작은 소망의 집(9.03㎡)인 무궁화의 집(Rose of Shraon)은 무궁화가 Rose of Shraon(샤론의 장미)으로 읽히는 점에서 '비옥하고 신성한 지역에 피는 꽃'으로 공간 스토리텔링하여 누구나 찾아와 삶과 위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홍천무궁화수목원 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무궁화의 집은 잔디와 단풍나무 두 그루, 화살

나무와 측백나무 조경 위에 전통양식의 서까래가 있고 주황색 기와, 종탑이 있는 작고 예쁜 공간으로 지난 4월 16일 준공하였다.

현재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으로 돌담길을 따라 100여 미터 땅위에 설치한 루미스톤(발광대리석)의 은하수 길을 일몰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한시적으로 점등하며, 2차 야간경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돌레길을 따라 걷다보면 소소한 행복, 당신은 참 예쁜 꽃, 시는게 꽃같네, 힘내요 당신, 바람 참 좋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힘들 땐 하늘을 봐 등 시적인 글귀들이 눈에 들어와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되며 읽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다양한 포토존에서 일행과 추억의 사진도 찍고, 나무그늘 아래 흔들의자나 벤치에 앉으면 온몸이 초록으로 물들어 버릴 듯 자연과 하나가 된다.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했던 상징적인 꽃, 꿈과 희망을 주는 무궁화수목원에서 '즐거운 걷기대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체험행사 장소로도 활용되면서 홍천군 대표 건강놀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돌담길 저쪽에서 한복을 입은 술래아이 한 명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뛰어 나올 것만 같다.

무궁화의 유래

한반도에서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상고시대의 지리·풍속을 널리 조사해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는데.....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는 시든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중국의 <고금주>에는 "군자의 나라는 지방이 천리나 되는데 무궁화가 많더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밖에 여러 문헌에서 한반도에는 수천 년에 걸쳐 무궁화가 널리 자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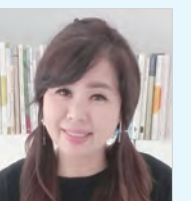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전국민으로부터 열광적 사랑을 받았으며, 문학적·의학적으로 진중한 대우를 받았다. 일본의 벚꽃, 영국의 장미와 같이 국화로 되어 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왕실화가 배꽃으로 정해져 무궁화는 점차로 세력을 잃고 조선민족으로부터 소원해졌던 것이다.

무궁화는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꽃을 피우는데, 흰색, 분홍색, 자주색, 청색 등으로 다양한 색깔이 있다.

그중 나라꽃의 표준으로 정한 것은 분홍 꽃잎 가운데 붉은 무늬가 생긴 홍단심과 흰 꽃잎 가운데 역시 붉은 무늬가 들어간 백단심이다. 대표품종인 백단심(白丹心)은 꽃이 백색이어서 무구청정(無垢淸淨)을 나타내고 진홍빛 화심(花心)은 겨레의 얼을 상징한다.

약 100일 동안 매일 새 꽃이 줄기 차게 피는 꽃나무로, 이름도 '끝없이 핀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문화행사

홍천 단오 한마당축제

단오떡 나눠 먹고 널뛰며 풍년 농사 기원



◇2021 단오 한마당축제가 지난 6월 14일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분수대에서 홍천문화원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판소리, 사교댄스, 투호 등 볼거리 체험행사 풍성 관람객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한마당 축제 만끽

홍천 단오 한마당축제가 6월 14일(월)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음력 5월 5일의 민속단오의 참 뜻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설장구, 판소리, 민요 등의 전통공연과 민속놀이, 각종 체험행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단오 한마당 축제는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과 홍천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성료하였다.

6월의 다소 무더운 날씨인데도 무궁화 공원에는 많은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야외무대에서 공연과 기원제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홍천문화원 박주선 원장의 단오절 유래와 홍천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필홍 홍천군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축사에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하여 예전과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곧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홍천문화원에서는 많은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민화 부채, 천아트(손수건에 야생화를 그리는 체험), 단오 포토존, 걱정 인형 만들기, 다문화센터 중국, 베트남(경극 가면 부채, 쭈운쭈운 만들기, 전통의상 체험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투호, 링 던지기, 제기차기, 널뛰기, 사교댄스 등 여러 가지 공연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수놓았다. 날씨도 더웠지만 긴 시간을 자리도 뜨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는 관객들의 한마당 축제는 흥미로웠다.

떡메치기

2인 1조로 체험하는 떡메치기, 예전에는 명절에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던 풍습이 있었다. 반세기 이전의 세대는 애뜻한 추억으로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집집마다 떡방아 찰 소리가 쿵더쿵더쿵 하모니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그릇에 담은 떡을 이웃들에게 돌렸다. 단오떡은 수리떡이라고 하며, 수리취를 꺾어다가 연한 잎을 따서 절구로 찧어 쌀가루와 섞어 찌서 수레형으로 둥글게 만들어 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수명 장수하여 복된다고 한다.

단오 부채

단오 부채에 갖가지 민화를 그리는 체험도 인기가 있었다. 날씨가 덥다 보니 부채가 나중에는 동이나 차례가 오지 않아 흘린 땀을 닦아 내야만 했다. 단오의 부채 내력을 옮겨본다.

단오날 갖는 부채, 옛날부터 이조 말까지의 풍속으로 해마다 단오날에 궁중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이것을 재상, 시종하는 신하, 액정의 소속까지 나누어 가졌다.

단오 빚

단오날의 풍속의 하나. 단오날에 여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붉고 푸른 옷을 입고 머리에 창포즙(창포 뿌리에 수복 두 글자를 새겨 연지를 칠한 비녀)을 꽂아 사귀를 물리치던 옛 풍습이다.

단오첩

단오날 신하들이 궁중에 올리는 첩자, 이조 말까지의 풍속으로 이날 내각, 육당, 환원의 여러 신하가 단오의 첩자를 지어 올리어 대궐 각전의 기둥에 붙였

는데 첩자는 단오절을 축하하는 축시였다.

홍천문화원(원장 박주선)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설장구, 판소리, 민요, 사교댄스, 팝오케스트라 등 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행사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떡메치기, 지게, 단오 포토존, 다문화 의상체험, 제기차기, 투호, 링 던지기, 널뛰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며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던 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오

모네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기도 한 단오는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여겨져 여러 가지 행사가 행해지고 있다. 단오의 '단'자는 처음 곧 첫번째를 뜻하고 '오'자는 오, 곧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 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단오는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양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유래

중국 초나라 회왕 때부터이다. 굴원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하여 먹라수라는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날이 바로 5월 5일이었다. 그 후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단오가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단오[端午] (학습용어 개념사전, 2010. 8. 5., 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승패 떠나 노익장 과시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

6개 읍면 선수 130명 참가 화합·우정 나눠 “매년 행사 개최 MG홍천새마을금고에 감사”

홍천군 체육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제10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 홍천군체육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5월 31일 홍천강변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성료하였다. 허필홍 홍천군수, 박상록 홍천군체육회장, 노승철 홍천군그라운드골프 회장, 신영재 강원도의원 등 관계자 및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클럽별과 단체전 개인전으로 그라운드골프의 진수를 보였다. 6월 12일에는 홍천읍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홍천읍 새마을지회(회장 강신, 부회장 백봉근, 여성회장 김경화, 총무 유호민)에서 음식과 선물을 찬조하여 참가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이어갔다.

MG홍천새마을금고 이사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6월 29일에는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 둔치에 위치한 홍천군 그라운드골프 경기장에서 제5회 MG새마을금고 이사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열렸다.

노승철 홍천군 그라운드골프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방역상 주의 지침에 의거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이 어려워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65세 이상 대부분이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어려운 금융시장 속에서도 홍천군 그라운드골프 회원을 위하여 매년 대회를 개최 해 주는 MG홍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생호)에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김생호 MG홍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평소 존경하는 홍천군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의 단합되고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으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한다. 열심히 운동한 결과를 선의로 겨루며, 회원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홍천읍 분회를 위시하여 내면, 영귀미면, 내촌면, 서면, 남면분회 회원 130여명이 참여



하여 실력을 겨뤘다. 대회에는 홍천군체육회(회장 박상록, 사무국장 김광배 외 직원들)와 MG홍천새마을금고(전무 민철홍 외 임직원), 홍천군 그라운드골프(전무이사 안상구, 상임부회장 강정식이)에서 진행을 도왔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기자칼럼



이 광 명

홍천실버신문 기자

어원은 넓은 내가 흐른다 하여 홍천이라고 한다. 홍천읍 북쪽을 수상 지역이라 하고 흐르는 냇물을 화양강이라 한다. 홍천읍 남쪽을 수하 지역이라 하고 흐르는 냇물을 홍천강이라 한다. 전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서석 미악골에서 발원한 홍천강은 400리를 흘러 북한강 청평댐으로 유입되고 서울 시민의 식수원이 된다.

홍천 수상지역은 울창한 삼림지역이라 산림 속 괴암 괴석에 토종별통이 많다. 꽃이 만발하여 자연 발원이 되어 토종 벌꿀이 생성되기 적합하다. 또한 초목이 무성하여 소와 젓소를 사육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좋은 육질의 홍천소와 토종꿀은 홍천의 특산품이 되었다. 버섯과 고랭지 채소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

소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상류나 하류나 홍천강이라 한다. 고대 철학자 말레스는 세계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였다. 물은 동식물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조건이다. 홍천은 물이 맑고 유량이 풍부해 동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다. 홍천의 찰옥수수, 잣, 인삼, 수라쌀, 한우, 사과, 오미자 등의 명품이

강원도 홍천이란?

재와 열목어가 많고 겨울엔 눈이 많이 온다. 수하 지역은 여러 곳에서 흐르는 냇물이 많아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밤별 유원지가 있다. 가족단위와 연인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소노벨리조트는 여름에는 오션월드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명

자라기에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기에 가능하다.

또, 괴암 괴석에서 흐르는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삼봉약수를 이뤄 병약한 자에게 효력을 얻게 한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유역이다. 그중 나일강은 사막에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것도 나일강이 이집

트를 관통하기에 가능했다. 홍천에는 홍천강이 흘러 공해 없는 농산물의 근원이 되었고 특히 여름에는 강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많아 각종 작물이 풍성히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지하수에서 온천이 나와 온천으로도 유명하고 물이 맑고 토양이 비옥해 보리와 맑은 물이 필요한 맥주 공장이 자리하기도 했다.

홍천은 좋은 물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 장수하는 마을로 불린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곳이다. 용문-홍천 철도망이 개설되면 한국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돼 주요 교통 요충지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까지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홍천으로의 젊은 인구들의 유입도 기대된다. 홍천강은 홍천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 기대한다.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총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려운 지금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버팀목이다. 버팀목이란 몸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거나 기댈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은 가장 힘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서, 한자는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족을 만들고 마을을 이루어 사회생활

을 하며, 국가를 조직하여 의지하고 협력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도 작은 말쑥에서부터 큰 장대까지 수없는 버팀목을 이용하며 살아왔다. 기력이 없을 때는 지팡이로, 다리를 다쳤을 때는 목발을 짚었으며, 집을 지을 때도 삼각 버팀목으로 기둥을 곧게 세워놓았으며, 쓰러지려는 헌집이나 벽담장까지 거기에 걸맞은 나무기둥

결하면 다리에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소나무 청솔가지를 단단하게 엮고 흙을 덮으면 섰다리가 완성되어 물에 빠지지 않고 다리위로 걸어서 건너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발명품인 운반용 지게 역시 지게작대기라는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손에 쥐기 적당한 굵기와 양 가달이 든든하게 나 있는 단단한 나무를 잘라 만드는데 이것

이 있어야 하며, 땅을 파고들어가야 하는 굴착작업에선 가장 필수인 것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받침목이다. 이 받침목을 제대로 받쳐놓지 못한다면 굴이 무너져 탄광굴 안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논둑이나 토사유출지역에 방천말뚝을 박는 일 또한 사고를 방지하는 일인데 이때 쓰이는 말뚝 또한 하나의 버팀목이다. 이 방천말뚝은 필히 소나무를 쓰는데 100년이 가도 소나무는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 임무를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외손자를 고이느니 방아공이를 고이겠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버팀목은 그래도 가장 미더운 것이 사람일 것이다. 자녀들의 버팀목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고, 아이들의 버팀목은 어른이며, 어려운 사람의 버팀목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며, 약자의 버팀목은 법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최후에 보루인 큰 버팀목은 국가라는 것을 위정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버팀목

을 받쳐 놓아 당장 쓰러짐을 버팀목으로 방지했는가 하면, 빨랫줄도 바지랑대로 버텨놓고 옷을 빨아 말렸다.

이웃마을 사이에 있는 냇물을 건너가야 하는 섰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자장 필요한 것이 다리발인 버팀목이다. 양쪽 가지가 있는 나무를 잘라서 냇물바닥에 양쪽으로 나란히 세우고, 긴 나무를 버팀목 다리발 양 가달 사이에 끼워서 연

이 지게작대기다. 지게작대기는 무거운 짐을 지게에 가득 지고 가다가 쉬러할 때 지게를 받쳐놓는 버팀목이며,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의 버팀목이자 지팡이며, 위험할 때 호신용이 되고, 흙이 날 때는 지게목발을 박자에 맞추어 두드리 는 악기채로도 쓰여졌다.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삼각지주대로 받쳐주는 버팀목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기초연금 수급자 91% ‘생활에 도움된다’

-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만족도 개선

□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 '20년 말 기준 수급자 수 약 566만 명.

□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 (82.4%) 대비 8.6%p 상승했다.

* (조사기간) 2020년 7월~11월 (조사내용) 수급자 생활실태 및 제도 인식

□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이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장재성지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033-439-5430

홍천실버신문 신규 기자 모집

활동내용 홍천 관내 소식 취재 / 원고 작성 / 교정회의 등

지원자격 60세 이상 / 홍천군민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신청문의 ☎ 033) 430 - 8700 / 8718

접수방법 유선 / 내방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찾아요! 청춘교실 모집

박민선 사회복지사 ☎ 033-430-8713

활동내용 기억력 높이기 뇌자극 수업
다양한 미술수업
건강관리 및 기능회복실 무료이용

참여방법 만 60세 이상 신청가능
월 3만원 납부
무료 송영서비스 이용

사랑의 흥캐스트 실버IT단 1기 모집

모집대상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활동시기 6월~11월

진행내용 1.강사와 스마트폰 교육 진행
2.스마트폰 교육 복습
3.배운 스마트폰 교육을 토대로 '보이는 라디오' 촬영
4.경로당에 교육 파견

문의 손민지 033-430-8715

함께 성장 기회

2021.6.1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접종목표 9월 말까지 3,600만 명, 3분기 2,200만 명 1차접종

접종대상 18~59세(임신부 제외)
*단, 16~17세(고3 학생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접종백신 5종 백신*, 약 8,000만 회분 공급 예정
*화이자, 모더나, AZ, 안센, 노바백스(허가상황에 따라 유동적)

접종기관 백신 다양화 및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변경에 따라,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다종백신 접종 준비

접종일정 7월에는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최우선),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대(50~59세) 우선접종
- 8월부터 40대 이하(18~49세)는 사전예약순서에 따라 접종
- 7월 말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8월부터 사업체 자체접종 병행

3분기 접종계획 일정

*백신 도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월	8월	9월
6월 미접종자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사, 수험생		
	50대	40대 이하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 등	

* 유동적 백신 도입상황을 고려, 도입일정 확정 즉시 백신종류를 반영한 계획 수립